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5호 [루게 제24993호] 주제 104 (2015)년 8월 3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1950년대처럼 군민대단결로 만남을 뚫고 기적을 창조하자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 군중대회 진행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에 호응하는 군중대회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군중대회가 2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조국과 강성국가건설대진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해내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은 군중들을 차고 넘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들에 게시되었다. 대회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들이 세워졌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은 동지 만세를 부르며》, 《위대한 조국방위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졌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7.27행진곡》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박태성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덕천지구관할구역지부지부위원장 장강훈,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문덕군립식물원장 권리원장 오복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수업대학 대학 조경원동맹위원장 김남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빛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긴 전세대의 투쟁전통을 뜻깊이 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불어넣고 당의 무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디다.》

토론자들은 전 회의 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천적반격을 위해, 방패가 되어 금수상태양군과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합경남도송배전부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기적창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도당과 시, 군당책임일꾼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주에 단단의 준비를 갖추고 달려나온 수백명에 달하는 각 시, 군의 송배전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7월초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이며 보름 남짓한 기간에 철락 새우기를 빛나게 계속하였다.

은덕지구의 송전공사를 맡은 금야군, 덕성군, 정평군, 함주군 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지대적투성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정

로 풀어나가게 하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전 회의 대학생들처럼 학습열풍, 과학탐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첨단과학로 조국번영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능한 청년과학기술인재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김재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강계제1사범대학 학생 박성철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도, 강성국가건설위업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역사의 신념을 심장에 쏘아박고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안의 로동계급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추진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적기의 맹목격속에서도 전시생산을 보장한 전세대의 육련정신, 사생결단의 투지로 질풍은 제물들을 평평 생산할것이라고 하였다.

공업공정들과 지방공업공정들을 만루하게 돌리는데 인민소비품생산에 결정적으로 높이며 전인민적의 의지로 단합투쟁과 발전투쟁에서 생산성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총자 혁명방향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쌀로써 우리 당의 선군정도를 받드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청년들은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들을 비롯한 중요건설현장들에서 선군정신전위의 용맹과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 동지의 소중히 간직하고 산립복구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오던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섬세이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성정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데 하였다고

고있다. 무봉-삼지연용출전선공사들은 많은 여러 시, 군송배전소들의 로동자들은 매일 구체적인 목표 밑에 구안별로 철락새우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전승을 맞으며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렸다.

1호발전소지구의 송전공사들을 맡은 백안군, 은봉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경사가 급한 지대적투성에 맞는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철락새우기속도를 높였다. 도송배전부일꾼들의 통일적인 지휘와 작전법에

지급 1호발전소-2호발전소 송전선공사에서 다시한번 본래대로 70%이상 해체했다. 량강도의 송배전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기세충천 내뿜고

강조하였다. 강원도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원산화학공장 지배인 황용영,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원산시농공맹위위원회 위원장 조영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 동방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1950년대 화신용사들의 호소는 도안의 인민들의 가슴속에 활없이 메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전세대에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전철한 조국수호정신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뜻깊이 이어 나감에 대하여 말하였다.

전 회의 제머리를 헤치고 강원도에 사회주의학원을 훌륭히 일떠세운 전승세대처럼 끝없는 정진력을 총괄하여 원산군민발전소와 원산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을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강성번영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원산화학공장과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공장,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전투적조소로 화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취를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

며 일하는 지방안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와 일터를 불타는 락동강전선으로, 1211고지로 생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동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동단, 백암군, 삼지연군 등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농사를 본래있게 지어 뜻깊은 10톤의 대추진을 자랑한 성과로 빛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탑바람에 불을 달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강영도 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서구역 청년농동조합 작업장 리봉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포수선대학 학생 장성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굽을 않는 실천적정신과 대담한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전투적조소로 화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취를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

며 일하는 지방안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와 일터를 불타는 락동강전선으로, 1211고지로 생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동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동단, 백암군, 삼지연군 등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농사를 본래있게 지어 뜻깊은 10톤의 대추진을 자랑한 성과로 빛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탑바람에 불을 달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강영도 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서구역 청년농동조합 작업장 리봉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포수선대학 학생 장성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굽을 않는 실천적정신과 대담한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전투적조소로 화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자취를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

며 일하는 지방안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와 일터를 불타는 락동강전선으로, 1211고지로 생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동단식과학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대동단, 백암군, 삼지연군 등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 감자농사를 본래있게 지어 뜻깊은 10톤의 대추진을 자랑한 성과로 빛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탑바람에 불을 달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삼지연지구철길건설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제4차 전국로동대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강영도 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방독한데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서구역 청년농동조합 작업장 리봉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포수선대학 학생 장성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철락새우기 결속, 전선늘이기 50%계선 돌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송전선공사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삼지연송전선공사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발전소건설과 동시에 송전선공사를 추진시키는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악지역에 펼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1호발전소로부터 삼지연역까지의 수직1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철락새우기를 빛나게 계속하였다. 동시에 이 구간에서의 피뢰선늘이기 전부 끝나고 합경남도송배전부가 맡은 20km 구간에서 전선늘이기 계속된 것을 비롯하여 전선늘이기작업은 50%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전력공업에서는 이국 백두대지의 송전공사를 하루빨리 계속하는것이 가치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성적인 힘을 집중하여 공사를 전력적으로, 령계적으로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송전선공사장에 전루파지를 정한 성의 책임일꾼은 8월 중순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전선을 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육력과 무공 동지의 전투장들을 오가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합경남도송배전부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기적창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도당과 시, 군당책임일꾼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주에 단단의 준비를 갖추고 달려나온 수백명에 달하는 각 시, 군의 송배전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7월초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이며 보름 남짓한 기간에 철락 새우기를 빛나게 계속하였다.

은덕지구의 송전공사를 맡은 금야군, 덕성군, 정평군, 함주군 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지대적투성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정

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지난 7월 29일까지 전선늘이기를 계속 일떠세웠다. 선봉군, 영랑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은 계속 도 개척지구의 전선늘이기과제를 제기일내에 결속하였다. 북청군, 회천군송배전소와 용강지구 송배전소의 로동자들도 집단적 혁신의 불길높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다.

결사관철의 함성높이 발은 20km구간에서의 철락새우기와 전선늘이기를 제일일떠 계속한 도송배전부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지금 1호발전소-2호발전소 송전선공사에서 다시한번 본래대로 70%이상 해체했다. 량강도의 송배전부문의 일꾼들과 로동자들도 기세충천 내뿜고

로반과 철다리, 차콜공사 힘있게 추진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서

혜산-삼지연철길건설장에서 조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다. 건설장1차공을 맡은 대대와 중대들에서는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대종의 정신력을 발휘시켜 도강공정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앞질조건이 나쁜 불리한 속에서도 난관을 타개해 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아내어 끊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함경북도, 황해북도려단들에서도 차콜공사가 진행하여 전투실적을 올리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꿰뚫고 새로운 조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남포시려단에서는 대상공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공사용전기장비를 위하여 일부력량을 동원하여 7월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평양시려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단년보증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기며 화산재가 덮인 지대의 토랑을 전부 다 없애고 민지리에서 플라 진흙을 대원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공요양 의거소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로반공사의 돌파구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각 려단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큰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있다.

모든 려단의 지휘관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실천하며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외의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돌격대원들이 건설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1만 5천여㎡의 토랑을 처리하고 1350여㎡의 막돌을 운반하여 철길로반다짐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강제를 비롯한 건설장제를 적극 탐구연구하여 려단이 맡은 소규모와 다리가초공크리트기공을 전부 끝내고 7월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차콜건설을 위한 도강공정에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건설장1차공을 맡은 대대와 중대들에서는 전투조직을 짜고들고 대종의 정신력을 발휘시켜 도강공정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앞질조건이 나쁜 불리한 속에서도 난관을 타개해 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아내어 끊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함경북도, 황해북도려단들에서도 차콜공사가 진행하여 전투실적을 올리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심장을 꿰뚫고 새로운 조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남포시려단에서는 대상공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공사용전기장비를 위하여 일부력량을 동원하여 7월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평양시려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단년보증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기며 화산재가 덮인 지대의 토랑을 전부 다 없애고 민지리에서 플라 진흙을 대원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공요양 의거소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로반공사의 돌파구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각 려단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큰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있다.

모든 려단의 지휘관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실천하며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외의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돌격대원들이 건설장적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1만 5천여㎡의 토랑을 처리하고 1350여㎡의 막돌을 운반하여 철길로반다짐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강제를 비롯한 건설장제를 적극 탐구연구하여 려단이 맡은 소규모와 다리가초공크리트기공을 전부 끝내고 7월전투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평양시려단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년책임, 단년보증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기며 화산재가 덮인 지대의 토랑을 전부 다 없애고 민지리에서 플라 진흙을 대원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공요양 의거소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밀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로반공사의 돌파구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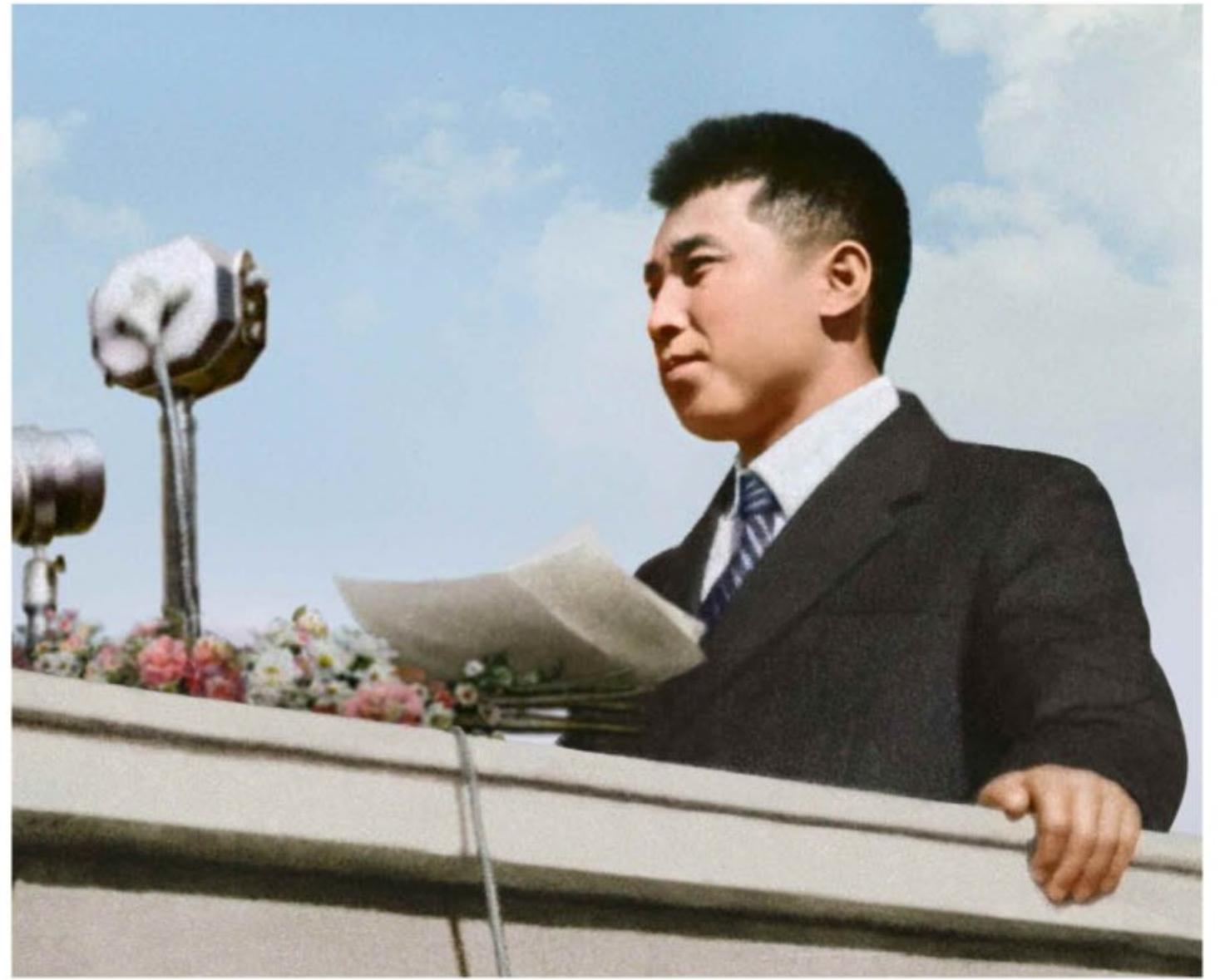


자강도에서

새 조선건설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 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2월



평양학원 교직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2월



강동군 삼들면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10월



문수봉에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4월



애국미헌남운동에서 첫 봉화를 올린 모범농민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8(1949)년 4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1돐을 맞으며 각 도 여성대표들이 올린 선물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6(1947)년 7월



수풍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10월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5(1946)년 5월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준공식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10월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8월 2일 로작 발표 기념일에 즈음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이젠 41돌기의 년월이 새겨졌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던 역사적인 그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역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 담지신 용성이 울려오던 것만 같다.

전당의 김일성주의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를 세우는 것이 우선임을 명시하시고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계가 확고히 선 언적본선의 사상적준거, 조직적집행, 행동의 통일제로 강화발전되었다.

새로운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에 힘입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는 것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철저하고 조성된 강위력한 전위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확고한 담보 마련한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철통같이 묶어세워 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며 천만민국의 고결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할 때이다.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떨쳐내 관철하고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로 바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데 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가 이룩된다

이들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천지운환유공장과 남동정년화환합작기업소, 천리마라일공장, 금집체육인종합시공장과 같이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공장들과 실적을 내고있는 단위의 책임인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다. 벼를 짚아서라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고야말겠다는 결사의 의지와 각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신의 실천적 책임으로 대충을 불려오고 그 애로와 난관을 뚫어내어 풀고 나가는 헌신적일선과 창조적기풍이다.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정의 피로 새길 때, 결사의 의지로 실천할 때 세계적인 변혁과 기적이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상으로 일색화한 신념의 결집과 만물의 위대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오직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은 세포의 강화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활에서는 때로 범상하게 여겨던 단계를 두고 깊이 음미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국가과학원 생물공분류학연구소에 대한 취재기에서 도 나는 그런 체험을 하였다.

당창건 70돌과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높이 세운 조국의목표수행에서 연구소가 이룩한 많은 성과를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나에게 당과 로미시 영웅의동무는 뜻깊은 울림에 당세포의 위력이 더욱 높 이 발휘되고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작은 세포가 유기체의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의 당간 기초조직을 당세포라고 이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세포! 귀에 익도록 듣고 자주 외워 내다의 하늘가에 매아리치는 조 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 기대렬은 목격자를 향하여 기운차게 달려갔다.

삼지연군안의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수호전과 반미대결전에서 백두산혁명군들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는 인민군인 들을 환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전당이 군중속으로!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위력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수필: 당세포, 그 부름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오늘 우리 당에는 전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있다.

《어떤 혁명적사업에서도》라는 말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천지공파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당의 사상과 로신을 옹호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 데서 용감히 되돌아와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뜻대로 단결하고 움직이며 평범한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백골같은 땅과 의리를 당을 받들어나가는 창민 혁명전사들로써 역사적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당세포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이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적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환란

백두의 혁명전통을 총대로 굳건히 이어가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 삼지연에서 출발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안이 어려지는 혁명의 붉은기를 펼쳐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조국조국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한 인민군장병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며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로 나뉘어 판문점을 향해 달려갔다.

2일 정전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 로양마당에서 출발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수송으로 사수하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인민군대를 수병적사용위정신, 백두산공격정신, 붉은기정신 이 특색이 혁명군대로 만들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졌다.

모임에는 조선인민군 정병, 군관,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일대전의 군복차림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일렬로 놓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정치리장관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군이 뜻깊은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력사의 발자취에서 조국해방 70돌을 맞으며 진행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출발모임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에 진행되는 붉은기이어달리기는 모든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하에 기어이 인민군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인민군인들 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떨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인민군인들에게 주체의 혁명전통을 마땅히 고수하여 길이 빛내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신념들이 지녔던 수령적사용위정신과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전략판주의 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에, 전투적인 학습기풍과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 새겨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에 혁명적동의를 높이 발휘하고 청춘의 기백과 열정, 패기를 안고 오고 생활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하며 인민군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생명제산을 죽음까지 보위하는 열렬한 애국자, 인민의 참된 아들딸이 될데 대하여 말했다.

보고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적 신원이 열리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백두산에서 혁명의 붉은기를

펼쳐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그어주시는 화살표를 따라 영웅조선의 기상을 펼칠 력사의 땅 판문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들로써 있었다.

도대론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적사과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해방 70돌의 최후승리를 떨쳐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글발을 새긴 붉은

기발이 대오에 수여되고 붉은기이어달리기 출발이 선포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가리마 백두산으로》 등의 노래선율이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매아리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붉은기이어달리기대렬은 목격자를 향하여 기운차게 달려갔다.

삼지연군안의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수호전과 반미대결전에서 백두산혁명군들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는 인민군인 들을 환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의 지원관들과 전투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적, 투쟁기풍으로 청년강계단식사업소로써 후퇴도로 다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련을 책임지고 만민을 보듬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를 만들어내고 만민대회의 기쁨 비적 창조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 도로건설려단 앞에는 청년강계단식사업소침수지구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데 대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었다. 건설현장에 도착한 전투원들은 즉시 지휘부원들과 임시소속들을 전개하였다.

다음날부터 려단은 공사에 진입하였다.

지원관들은 해당 부문의 변계도에 빈담기설치, 전기선공사와 함께 속도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실어올리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고 구성을 높여가 하였다.

이렇게 려단에서는 군인정신과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단원들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있었다.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려단에서는 돌격전을 벌여 불과 몇달만에 인민군대에 다리를 건설할데 이어서 다리건설현장에도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려단에서는 돌격전을 벌여 불과 몇달만에 인민군대에 다리를 건설할데 이어서 다리건설현장에도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다리건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의 지원관들과 전투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적, 투쟁기풍으로 청년강계단식사업소로써 후퇴도로 다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련을 책임지고 만민을 보듬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를 만들어내고 만민대회의 기쁨 비적 창조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 도로건설려단 앞에는 청년강계단식사업소침수지구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데 대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었다. 건설현장에 도착한 전투원들은 즉시 지휘부원들과 임시소속들을 전개하였다.

다음날부터 려단은 공사에 진입하였다.

지원관들은 해당 부문의 변계도에 빈담기설치, 전기선공사와 함께 속도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실어올리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고 구성을 높여가 하였다.

이렇게 려단에서는 군인정신과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단원들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있었다.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려단에서는 돌격전을 벌여 불과 몇달만에 인민군대에 다리를 건설할데 이어서 다리건설현장에도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다리건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의 지원관들과 전투원들이 인민군대의 투쟁진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적, 투쟁기풍으로 청년강계단식사업소로써 후퇴도로 다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천련을 책임지고 만민을 보듬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를 만들어내고 만민대회의 기쁨 비적 창조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애국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 이곳 도로건설려단 앞에는 청년강계단식사업소침수지구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할데 대한 전투과업이 제기되었다. 건설현장에 도착한 전투원들은 즉시 지휘부원들과 임시소속들을 전개하였다.

다음날부터 려단은 공사에 진입하였다.

지원관들은 해당 부문의 변계도에 빈담기설치, 전기선공사와 함께 속도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실어올리기 위해 밤이 깊도록 뛰고 구성을 높여가 하였다.

이렇게 려단에서는 군인정신과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단원들이 다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있었다.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려단에서는 돌격전을 벌여 불과 몇달만에 인민군대에 다리를 건설할데 이어서 다리건설현장에도 1천 100톤의 세멘트창고도 훌륭하게 건설해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다리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자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때로부터 30년이 되던 지난해 8월 3일, 각지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무한한 격정속에 뜻깊게 맞이했던 그날로부터 또 한해가 흘렀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문명있는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주체 73(1984)년 8월 3일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몸소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찾으신 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하나하나 소개하시고 나아가길 장을 환히 밝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은 이 부문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심장마다 소중히 간직되어 그들모두를 장군님의 유훈을 지고미한 자랑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갈 불타는 결의로 가슴머미까지 하

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군중의 창조성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다양한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식료일용품업 일군들은 이 운동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지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은 늘 헌신이 나가 실정을 깊게 로해하고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러하여 전국적으로 올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자들에 의한 소비품생산운동은 시작으로 7500여종에 6만 2천여점의 인민소비품이 출품되었다. 평안북도의 당, 행정일군들이 1980년대초부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에 모는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이 펼쳐나서도록 경제선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고 민중없는 조직사업, 폐인 총화평가사업으로 생산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함경북도인민시, 군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직매점을 총동원 개편하는 사업과 새 제품개발, 질제고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의 정성력을 발동하는 사상적인 집중노력, 연속노력, 명중포화를 들이대어 눈에 띄는 혁신을 가져왔다. 도 일군들은 뜻깊은 이념을 맞으며 새로운 신심과 각오를 넘쳐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떨쳐보이고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성적파여부가 인민을 받드는 자기의 자세와 힘에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한 남포시의 구역, 군일군들도 늘 생산선전과 직매점에 나가 소비품생산과 판매정형을 로해하고 생산을 부단히 추동하여 소비품생산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인민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함경북도 길주군, 정선군, 남포시 와우도구역, 황해남도 장연군, 량강도 보천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 군소비품생산자들에게 의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날이 갈수록 생활력과 위력이 높아 발휘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평양시 대동구역, 보통구역, 평안남도 평성시, 함경북도 청진시 신양구역은 비롯하여 많은 시, 구역, 군들에서 동가작업반운영이 활성화되어 직매점에 내놓은 소비품들이 근로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지프도 당당히 이름떨치고 있다.

각지 시, 군, 구역직매점운영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하여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는 거점으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것은 올해에 이 부문 일군들과 직매점봉사자들이 이룩한 성과이다.

평양시 대동구역, 려포구역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삭주군, 평안남도 개천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포항구역, 량강도 해산시, 강원도 원산시직매점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 군직매점들이 훌륭히 개진되었을뿐 아니라 자체의 리용생산반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궁정적모범으로 자기 단위의 생산을 책임적으로 선도해나가고있다.

오늘 모든 시, 군일군들과 소비품생산자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사회주의경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 높이 떨쳐가고있다.

본시기자 명홍숙



—평 천구역 직매점에서— 본시기자 김광혁 찍음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성적파여부가 인민을 받드는 자기의 자세와 힘에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한 남포시의 구역, 군일군들도 늘 생산선전과 직매점에 나가 소비품생산과 판매정형을 로해하고 생산을 부단히 추동하여 소비품생산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인민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어 주고 있는 길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인민소비품 생산을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를 열었다. 협의에서는 직매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꼭 채워놓아야 주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웠다.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일군들은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긴밀히 해주면서 유통망을 높이고 판매가 이루어지는속도까지류품을 빨리 실현되게 함으로써 확대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가내작업반들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가내수입에 늘어남으로써 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부양가족들의 열의도 높아졌다.

그 비결은 물론 사람들에게 군일군들은 직매점을 잘 꾸려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관계를 긴밀히 해준다고 이야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드높은 열의, 불타는 맹세

인민의 참된 총부

두해 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 지도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차지하는 몫을 깊이 자각하고 조직정지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얼마전 청진시 신양구역 가내작업반관리에서는 자기 고장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리용하는 특색있는 학용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빨래비누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우리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이런 궁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어 일반화함에 이르기 위하여 인민의 사랑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국장 리정옥

주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군당위원회의 지도도에 인민위원회에서는 고경속도투쟁을 위한 직매점운영원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 석달 남짓한 기간에 직매점을 훌륭하게 개편하고 자체와 제품창고도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직매점운영원들의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이와 함께 군일군들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은 받은 단위들에서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직매점의 봉사자들이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늘 알아보고 제때에 생산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군일군들은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긴밀히 해주면서 유통망을 높이고 판매가 이루어지는속도까지류품을 빨리 실현되게 함으로써 확대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가내작업반들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가내수입에 늘어남으로써 인민소비품 생산에 대한 부양가족들의 열의도 높아졌다.

그 비결은 물론 사람들에게 군일군들은 직매점을 잘 꾸려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관계를 긴밀히 해준다고 이야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드높은 열의, 불타는 맹세

인민의 참된 총부

두해 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 지도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차지하는 몫을 깊이 자각하고 조직정지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얼마전 청진시 신양구역 가내작업반관리에서는 자기 고장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리용하는 특색있는 학용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빨래비누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우리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이런 궁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어 일반화함에 이르기 위하여 인민의 사랑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국장 리정옥

드높은 열의, 불타는 맹세

인민의 참된 총부

두해 전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의 일군들은 도당위원회 지도도에 인민생활향상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이 차지하는 몫을 깊이 자각하고 조직정지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참신하게 벌였다. 얼마전 청진시 신양구역 가내작업반관리에서는 자기 고장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리용하는 특색있는 학용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빨래비누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우리는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이런 궁정적모범을 적극 찾아내어 일반화함에 이르기 위하여 인민의 사랑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국장 리정옥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우리 나라 남자 축구팀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남자 축구팀이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되고있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첫날 경기에서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일부러 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남조선팀이 참가하고있다.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 전반전에서 실점당하였지만 후반전에 들어가 2, 3인원력과 측면 돌파 등으로 득점기회를 마련하면서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

문전앞에서 머리 받기로 몇몇은 득점장면을 펼쳐 보였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팀이 2:1로 일본팀을 이긴 가운데 끝났다.

우리 나라 팀은 5일 중국 팀과 두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나라 남, 녀 축구선수들이 대회 첫날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기사를 받들고 드높은 체육열정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온 나라 천만민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팀의 박현일선수가 경기시간 88분경 상대팀

우리 나라 남자 축구팀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남자 축구팀이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되고있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첫날 경기에서 일본팀을 2:1로 이겼다.

2일부러 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남조선팀이 참가하고있다.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 전반전에서 실점당하였지만 후반전에 들어가 2, 3인원력과 측면 돌파 등으로 득점기회를 마련하면서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

문전앞에서 머리 받기로 몇몇은 득점장면을 펼쳐 보였다.

이날 경기는 우리 나라 팀이 2:1로 일본팀을 이긴 가운데 끝났다.

우리 나라 팀은 5일 중국 팀과 두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나라 남, 녀 축구선수들이 대회 첫날경기들에서 거둔 성과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기사를 받들고 드높은 체육열정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온 나라 천만민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 팀의 박현일선수가 경기시간 88분경 상대팀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동지들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값높은 삶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매개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지방의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에서 질 좋은 소비품의 가시수를 높이기 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일군, 인민의 참된 총부 되었다.

신민주주의시대를 리용생산반 운영을 위한 헌신적투쟁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자기 고장에 혼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끝났다

【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지난 7월 29일에 시작되었던 GAC그룹 2015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가 2일에 끝났다.

경기대회 최종 순위는 다음과 같다.

성인남자복식

1위 최일(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2위 박신혁(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손진(중국)

2위 학락(중국)

성인남자복식

1위 박신혁, 최일(조선)

2위 최일, 안지성(조선)

성인남자단식

1위 김홍이, 리명순(조선)

2위 김해성, 리미경(조선)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되었다. 경기대회는 여러 나라 선수들사이에서 최고의 열의를 나누고 탁구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